

이슈브리프

No. 2025-32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한계

이동규

연구위원

2025-10-02

2025년 8월 31일~9월 1일 중국 텐진(天津)에서 25차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SCO 정상회의는 26개국 정상이 참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으며 관계가 소원해졌던 인도의 모디(Narendra Damodardas Modi) 총리가 참가하면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하 시진핑)은 이번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 이란, 인도 등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 수장들을 한 자리에 모으며 반미 연대를 연출했을 뿐 아니라, 최초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 이하 GGI) 발표를 통해서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중국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SCO 개발은행 설립,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플랫폼 추진 등으로 SCO를 경제협력체로 전환해 SCO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식 담론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유엔(UN) 헌장 원칙과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위를 비난하며 한미관계를 이간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이를 인지하고 동맹 및 협력국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기반한 대응 개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유엔 헌장 원칙 준수와 다자주의가 중국의 전유물이 아님을 지적하며 중국식 담론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SCO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를 인지하고 공급망 및 금융 분야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녹색산업,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의 협력 플랫폼을 SCO 회원국에 확대하고 SCO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SCO 회원국에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 플랫폼이 확대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SCO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중국의 의도에 따라 중국 주도의 공급망, 혹은 반(反)서방 협력체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SCO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SCO 개발은행이 향후 러시아, 이란 등 제재와 연계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가는 신중해야 한다.

2025 SCO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

1. 반미 연대를 연출하고 국제질서 개혁 의지를 표명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톈진 선언(Tianjin Declaration)'은 "2025년 6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고 "원자력 시설을 포함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공격적 행위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과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자 이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¹ 또한, 경제적 성격의 조치를 포함하여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 세계 무역 기구의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일방적 강압 조치에 반대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관세정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 톈진 선언에는 SCO 10개 회원국이 모두 이름을 올렸는데, 국경 분쟁과 글로벌 사우스 주도권 경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인도도 중국 주도의 SCO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지난 2025년 6월 SCO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추진했지만, 인도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² 인도가 최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50%의 고율관세를 부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인도를 포함해 SCO 회원국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의 SCO 참석과 공동성명 참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부각하는 것이었다. 의장국인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50%의 고율관세를 받은 인도, 핵시설을 공격당한 이란 등 미국 및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반미 연대를 연출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했다.

또한, 시진핑은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GGI를 최초로 발표하며 국제질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9월 1일 SCO 정상회의 연설에서 시진핑은 “냉전적 사고방식, 패권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를 옴아매고 있다. 세계가 새로운 격동과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주권 평등 준수,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 실질적 행동 중시를 핵심으로 하는 GGI를 공식 제안했다.³ 이는 2021년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DI), 2022년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 2023년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GCI)에 이어 시진핑이 제시한 4번째 글로벌 담론이다.

중국은 다양한 글로벌 담론을 제시하고 중국이 미국과 달리 인류의 발전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려고 노력해왔다.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관세 정책으로 대미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GGI를 통한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의 개혁 방향과 원칙 제시는 향후 국제질서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과 각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미국과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시도인 것이다.

GGI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이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기본 규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⁴ 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중국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미 2024년 보고서를 통해서 2021년 기준 15개 주요 유엔 기관 중 국제식량기구(F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수장이 중국인임을 지적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했다.⁵ 2025년 중국의 유엔 분담금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 미국의 22%에 근접했고,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개발협회(IDA),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에 대한 중국의 기여금도 지난 10년 동안 4배 이상 늘었다.⁶ 이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입지가 강해졌고 다양한 글로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GGI를 통해 국제기구의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고 그 권위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기구를 활용해 중국의 입장과 규범을 확산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SCO를 경제협력체로 전환하며 SCO 주도권 확보를 모색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은 SCO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했다. SCO 개발은행은 인프라, 에너지, 무역 등에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간 금융 협력과 지역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결제 시 현지 통화나 비(非)달러 결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운영 방식, 자본 구조, 출자 비율 등에 대해 회원국 간 논의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SCO 개발은행을 통해서 연내 회원국에게 20억 위안(약 3,900억 원)을 무상으로 원조하고, 향후 3년 동안 은행연합체 회원 은행에 100억 위안(약 1조 9,5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SCO 개발은행 설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SCO 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변화이다. 중국은 이미 2010년도부터 SCO 개발은행 설립을 제기해 왔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SCO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개발은행(EDB),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른 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중국 주도로 SCO 개발은행이 생기고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SCO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⁷ 그래서 러시아는 SCO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태도 변화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의 대(對)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SCO 회원국들은 SCO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협력 과제를 진행하는 한편, 결제 시 현지 통화나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이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유리하지만, 미국 주도의 금융체제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통해서 러시아, 이란 등 국가들이 직면한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물론, SCO 회원국 간 경제 규모, 개발 수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SCO 개발은행 설립이 중국의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러시아, 이란 등 제재 국가가 은행 설립에 참여할 경우, 서방이 이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여기고 SCO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SCO 개발은행 설립 승인을 통해서 SCO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SCO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더해서 중국은 인공지능(AI),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국가 간 거버넌스 격차를 지적하고 에너지, 녹색산업,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과 다른 SCO 회원국의 기술 격차와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이러한 협력은 중국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분야에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면 SCO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SCO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도 높아질 것이다.

3. 중국의 경제 및 기술 지원을 내세우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주도

GGI 개념 문건에서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결함 중 하나로 글로벌 사우스 대표성의 심각한 결핍을 지적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공언했다.⁸ 또한, 상술한 것과 같이 SCO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서 SCO 회원국에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공언하고, 에너지, 녹색산업,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이 자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SCO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국제 질서 변혁의 핵심 세력”으로 인식하고⁹ 자신을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제기구를 통해 자신의 입장과 규범을 확산하려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중요한 지정학적 행위자이자 ‘스윙 국가(swing state)’로 주목 받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및 서방에 대항해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¹⁰ 특히,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와 경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¹¹ 중국이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및 개발도상국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질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약속한 것은 글로벌 사우스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직면한 한계

1. 회원국 간 이견과 내부 불안

톈진 선언을 통해서 SCO 회원국은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공감대를 드러냈다. 이란이 SCO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쉽게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러-우 전쟁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2017년 칭다오 SCO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북핵 관련 내용에 대해서 SCO 회원국 간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합리적 안보 우려”라며 옹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 내용을 배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특별 예우하면서 북중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중국의 주도로 SCO 공동성명에 북한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북중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푸틴(Vladimir Putin)이 SCO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서방의 지원과 우크라이나 쿠데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을 볼 때,¹² 러시아 역시 SCO 정상회의를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선전하고 SCO 회원국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와 러-우 전쟁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회원국 각국의 해석과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인도의 행보가 이를 방증한다. 비록 인도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SCO에 참석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텐진 선언에도 참여했지만, 정작 중국의 일대일로(Belt & Road Initiative, BRI)를 지지하는 부분에 인도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 또한, 모디는 방중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 SCO 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불참했다. 이를 통해서 모디는 이번 SCO 정상회의의 참석 목적이 중국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반발임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은 SCO의 발전과 역할을 강조하며 회원국 간 결속력과 단결을 과시하려 했지만, 회원국 간 지정학적 갈등, 미국과의 관계 설정, SCO의 제도적 방향 등 회원국 간에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SCO 내부 불안은 중국이 향후 SCO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 데에 도전 요인이 될 것이다. 민감한 국제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을 고려할 때, 북한의 SCO 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구체적인 실행 계획 결핍

이번 SCO 정상회의는 텐진 선언, GGI, '향후 10년 발전전략(Development Strategy until 2035)', '2차 세계대전 종식 및 유엔 창립 80주년 공동 성명(Statement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CO in connection with the 8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등 많은 선언이 발표됐다. 정작 그 내용을 보면, 테러리즘, 마약 범죄 대응, 핵무기 및 화학무기 반대, 지역 협력 등 대부분은 기존 SCO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SCO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SCO 개발은행 설립, 안전전략센터 설립, 디지털 거래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고, 녹색산업, 에너지,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혁신,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 6대 협력 플랫폼의 출범을 촉구했지만, 결국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된 GGI도 이전의 글로벌 담론과 마찬가지로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주권 평등 준수,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 실질적 행동 중시 등의 핵심원칙은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이 GGI를 확산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만큼 SCO 회원국 간의 이견과 이해 충돌을 조정하거나 결속력을 강화할 수단은 결여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회원국 간 이견과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통해서 SCO 경제협력을 주도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상징적 선언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중국은 향후 회원국들 간 이견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견제와 압박에 직면한 중국이 이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이번 SCO 정상회의를 통해서 중국은 GGI를 제안하고 유엔 헌장 원칙과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해 나갈 의지를 내보였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SCO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한다. 미국과의 전면전을 지양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은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식 담론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도 다자주의와 유엔 헌장 준수를 지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것들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다. GGI에 대한 논평에서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는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모호한 수사이며 '가짜 다자주의(pseudo-multilateralism)', 즉 서구식 다자주의는 배타적 소그룹을 형성한다면서 현재 국제질서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¹³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제시한 '5개의 마땅히 해야 할 사항(五個應當)' 중 하나가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지지하라는 압박이었다.¹⁴

최근 한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모습이 부각되면서 한국 내에서 반미 여론이 형성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중국은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중 양자 차원은 물론, 다자회의에서도 유엔 헌장 원칙과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위를 비난하며 한미관계를 이간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이를 인지하고 동맹 및 협력국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기반한 대응 개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유엔 헌장 원칙 준수와 다자주의가

중국의 전유물이 아님을 지적하며 중국식 담론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SCO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를 인지하고 공급망 및 금융 분야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녹색산업,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의 협력 플랫폼을 SCO 회원국에 확대해 나가며 SCO를 경제협력체로 전환하는 한편, SCO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서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SCO 회원국에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 플랫폼이 확대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SCO 회원국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은 에너지, 광물, 운송로 등의 측면에서 한국에게 중요하다. 이미 한국이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필두로 SCO 회원국과의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⁵ 한국은 SCO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중국의 의도에 따라 중국 주도의 공급망, 혹은 반서방 협력체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에너지, 광물 자원 등의 분야에서 중국 주도의 공급망이 형성되거나, SCO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이나 SCO 개발은행이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SCO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SCO 개발은행이 향후 러시아, 이란 등 제재와 연계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SCO 개발은행 참가는 신중해야 한다.

저자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 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과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
- ¹ "Tianjin Declaration of the Council of Heads of State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² "Why India refused to join SCO condemnation of Israel's attacks on Iran", Aljazeera, 2025.06.16., https://www.aljazeera.com/news/2025/6/16/why-india-refused-to-join-sco-condemnation-of-israels-attacks-on-iran?utm_source=chatgpt.com.
- ³ "Full text of Xi Jinping's speech at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Plus' Meeting", China Daily, 2025.09.01., <https://www.chinadaily.com.cn/a/202509/01/WS68b57f8ca3108622abc9e4c0.html>.
- ⁴ Chinese Foreign Ministry, "Concept Paper on the Global Governance Initiative", 2025.09.01., https://www.fmprc.gov.cn/eng/xw/wjbxw/202509/t20250901_11699912.html.
- ⁵ CSIS, "Great Power Competition in the Multilateral System", 2024.10.23., <https://www.csis.org/analysis/great-power-competition-multilateral-system>.
- ⁶ "중국이 낸 유엔 분담금 20% 첫 돌파... '미국과 대비'", KBS 뉴스, 2025.03.0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2164>; "국제 사회 영향력 키우는 中... '美, 대응책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2024.11.0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0115372157108>.
- ⁷ Nicholas Olczak,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An evolving platform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25.03., https://www.ui.se/globalassets/ui.se-eng/publications/ui-publications/2025/final-ui-report-no.-3-2025.pdf?utm_source=chatgpt.com.
- ⁸ Chinese Foreign Ministry, "Concept Paper on the Global Governance Initiative", 2025.09.01., https://www.fmprc.gov.cn/eng/xw/wjbxw/202509/t20250901_11699912.html.
- ⁹ "中共中央政治局委員、外交部長王毅就中國外交政策及對外關係回答中外記者提問", 中國外交部, 2024.03.07., https://www.mfa.gov.cn/wjzbzd/202403/t20240307_11255225.shtml.
- ¹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해서는 이동규&김지연,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현황과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01.16을 참고.
- ¹¹ 인도는 2023년 1월에 주최한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Voice of Global South Summit)'에 중국을 초청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협력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¹² Kremlin, "Address by the President of Russia at the SCO Heads of State Council Meeting", 2025.09.01.,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77891>.
- ¹³ "The proposal of the Global Governance Initiative comes at the right time: Global Times editorial", Global Times, 2025.09.0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09/1342348.shtml>.
- ¹⁴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의 '5개 응답'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2.08.22.
- ¹⁵ 송효규 외,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트레이드 포커스, 2024. 06.06.; 김정곤 외, "인도의 인프라 정책 및 수요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브리핑, 2025.02.24 등.